

박지나 대표 (국제구호단체 JTS)  
지구촌 이웃 돕기 보현행 20년  
"자비나눔에 작은 보탬 됐으면..."  
16·17면

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며  
객기를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해 비겁하지 말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6월 6일) · 주간

제 999호 2014년 7월 2일 수요일

## 비구니 스님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참여 문 열리다

조계종 중앙총회서 통과... 25일 개원, 각종 法 처리

원장 선거인단 확대 종헌  
진정성 논란... 차기 이월  
각종 종단 인사안 통과도

비구니 스님의 종단 참여 장벽 중 하나였던 호계위원과 법규위원회에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함적)는 6월 25일 제198차 임시회를 열고 비구니 초심호계위원 참여 등 종헌 개정안과 각종 종법 제·개정안을 논의했다.

종헌 개정안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비구니 초심호계위원과 법규위원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에 대한 개정이었다. 중앙총회는 관련 종헌 개정안을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초심호계위원은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자격을 법계 종덕·현덕, 승남 25년, 연령 45세 이상의 승려로 규정해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참여를 열었다. 초심호계위원에 비구니 스님들은 2인이 참여하게 된다. 다만 비구니 호계위원이 비구를 갈마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규위원의 자격을 '법계 종사·명덕, 승남 30년, 연령 50세에 이상의 법가에 밝은 승려'로 개정해 수정해 비구니 스님들이 법규위원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 종헌기구

인 호계위원과 법규위원회 참여가 가능해진 것은 종단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참종권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승남 20년 이상의 비구·비구니 스님들에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이 '졸속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차기 총회로 이월됐다.

총회의원 영담 스님은 총무원이 입법 예고한 선거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스님은 "중앙총회의원들에게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레 공청회와는 다른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총회 통과를 원칙적으로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종단 주요 인사도 통과했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호법부장 세영 스님의 임명 동의안을 비롯해 초·재심 호계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등을 선출했다.

임명동의 직후 총회의원 일문 스님은 의사발언을 통해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의 호법부 징계를 촉구했다. 일문 스님은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이 1달 전 조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현직 총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에 대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바 있다"면서 "어제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이 지광 스님의 호법부 징계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엄중한 처리를 당부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4대 종교인 단체는 6월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랍니다”

불교 등 4대종교 단체, 23일 기자회견... '정부의 무능' 지탄

유사 이래 최대 인재(人災)로 손꼽히는 세월호 침몰사고부터 최악의 인사 참사로 불리는 문장국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무능한 행태에 종교인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4대 종교인 단체는 6월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무능력과 국가 폭력을 비판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무엇인지,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노골적인 국가폭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묻은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 국민이 세월호 유가족이 됐다. 은폐된 구조 과정이 국가와 정부의

무능과 범죄를 의심하게 된다. 그런 데도 정부는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대 종교인들은 70~80대 어르신과 수녀들을 공권력의 폭력으로 끌어내고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밀양 사태와 설계 수명 종료된 노후 원전들의 무리한 운영 연장, 철도 민간 매각과 의료 민영화 등 사회 현안을 예로 들며 현 시국을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력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4대 종교인들은 “안타깝고 슬픈 것은 눈과 귀를 가리고 독거 왕궁에서 사는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 무능력”이라며 “유사 이래 참사라 기록된 정부 인사 조치로 대한민국호가 침몰하는 상황에 대통령 혼자 탈출한 형국”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지난 대통령 부정선거와 국

정원의 간첩조작 사건, 세월호와 밀양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과 국가 폭력은 이미 그도가 지나쳤다”면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불통과 독단,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고 주장했다.

국정 쇄신을 위한 첫 걸음으로 세월호 진상 규명을 끝낸 종교인들은 스밀양 송전탑 원점 재검토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인사 참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 및 부적격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촉구했다.

4대 종교인들은 “4대 종단 성직자들은 정부의 무능한 행태에 슬픔과 분노를 감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존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정부라면 그 어떤 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논란 많은 新법인법 가결

논란의 요지가 많은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장시간의 수정 끝에 가결됐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6월 25일 열린 제198차 임시회에서 이 같이 결의했다. 법 통과에 따라 경과조치를 마련해 선학원과 대각회 등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에 대해서는 9월30일까지 종단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여타 법인에 대해서는 12월31일까지 종단등록을 마치도록 규정했다.

새로운 법인관리법은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던 법인에 대한 규정을 종단법인·사찰보유법인·사찰법인·사찰출연법인·사찰공

동출연법인·승려법인·종단등록법인·미등록법인 등으로 세분화했다.

법인정관의 임원조항에서는 사찰의 재산을 출연한 법인의 경우 각각의 규정에 따라 종단소속 스님을 마련해 선학원과 대각회 등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에 대해서는 9월30일까지 종단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여타 법인에 대해서는 12월31일까지 종단등록을 마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고 선학원과 별다른 소용없이 만든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성민 기자  
(관련 해설 2면)

### 999호 INDEX

3 종합 <님의 침묵> 전편 해설서 분석



3 신행·복지 용수 스님, 영어 자비명상 인기 북지관 세대통합 프로그램 논길

8 함께가요 강의실 불교인문학 강좌-신앙으로서 부처님

6·7 해외불교 간다라 미술 목공예 사라질 위기

20·21 문화 불교중앙박물관 사리장엄 특별전 아이티엔터테인먼트 박상현 대표

## ‘호국불교 성지’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우리나라 11번째... 실크로드·중국 대운하도 함께

호국불교의 상징인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제38차 세계유산정부간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는 6월 22일 남한산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등재키로 결정했다.

남한산성은 승군이 축조를 담당했으며, 성곽 방어 등을 위해 승군 사찰을 지어 승군을 주둔케 한 곳이다. 특히 인조는 승도청(僧徒廳)을 두고 각성 스님을 도총섭으로 8도의 승군을 동원해 항마군(降魔軍)이라 명명, 망월사와 옥정사, 국청사, 동림사, 개원사, 천주사, 장경사 등을 건립케 했다.

세계유산위원회와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ICOMOS)는 남한산성이 17세기 초 비삼시 임시 수도로서 당시 일본과 중국의 산성 건축 기술을 반영하고, 서양식 무기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 방어 기술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세계유산 선정에는 지금까지 사찰을 비롯해 주민들이 거주하

고 있어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남한산성 인접 지역의 개발 행위를 적절히 통제하고 주민들이 유산 관리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남한산성의 승군사찰들은 현재 장경사, 국청사, 망월사, 개원사가 복원됐으며 나머지는 사찰터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문화재청은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남한산성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실크로드와 중국대운하, 프랑스 남부 그로트 쇼베 동굴의 세계유산 등재도 승인했다. 이중 실크로드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공동 신청한 것으로 실크로드를 따라 세워진 불교사원과 탑 등의 유적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관련 기사 5면)

## 최초 비구니 군승 명법 스님 임관

27일 괴산 학생군사학교서 임관식

군부대에서 포교 활동을 펼치게 될 최초의 비구니 군승장교 임관식이 6월 27일 충북 괴산 학생군사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군불교 사상 최초의 비구니 군승인 명법 스님을 비롯해 신임 군승 13명이 함께 임관을 치렀다. 이들은 6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자승 스님에게 임관신고를 올렸다.

한편, 1980년 태어난 명법 스님은 1999년 19세에 마곡사를 재적 본사로 출가해 2000년 사미니계를

받았다. 그후 2006년 동학사 승가대학 졸업, 2010년 어산작법학교 졸업, 2014년 2월 동국대학교 불교학부를 졸업했다.

군승특별교구는 국방부가 2013년 7월 군종병과에도 여성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비구니회와 협의 하에 비구니 군승 파송을 추진해왔으며 부산 군사사령부 2보급단 군법당인 금련사에서 설법과 상담, 심리학 등 '입대 전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군사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왔다. 노덕현 기자

**사고** **알립니다**

서울지방우정청의 우편 집중국 토요일편찬구 운영 폐지 방침에 따라 본지는 오는 7월 9일 이후 발행되는 신문부터 발행일이 수요일에서 매주 목요일로 변경됩니다. 되도록이면 빠르게 발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헤랑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지역문화를 빛낸 역대조사님을 위한

# 전통다례 문화대축제

일시 : 2014년 7월 5일(토) 9시 30분  
장소 : 포항시 내연산 보경사  
주최·주관 : 포항불교사암연합회  
후원 : 경상북도·포항시·포항불교신도단체연합회·위덕대학교 정각회·의사불자회·BBS 불교방송 동부취재본부·대경일보  
문의 : 행사추진위원장 준제 (010-7757-2313)